

더듬기로서의 드로잉을 통한 세계인식

인터뷰 김홍희 (미술 평론가)

김홍희(이하 김): 현대미술은 복수주의, 다원주의 등으로 일컬어지듯이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도널드 커스핏(Donald Kuspit)은 70년대 이후 미술은 이러한 다양한 양상을 크게 둘로 나누어 의식(意識)의 미술(Art of Consciouce)와 순수 형식의 미술(Art of pure form)로 분류하였습니다. 순수 형식의 미술은 추상미술에서 그 극점을 보게 되는 모더니즘의 전통을 말하고, 의식의 미술은 아방가르드 전통에 기반하며 예술과 삶이 통합을 지향하는 정치적인 미술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체나 양식상의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공감이 갑니다. 말하자면 예술의 본질을 정보나 소통으로 보느냐 아니면 순수형식의 예술이냐가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커스핏의 분류는, 70년대 순수 형식에 대한 추구가 극대화된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내용을 중시하는 정치적 예술이 병발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현대미술의 양상을 파악했을 때 엄정순씨의 작업은 어느 경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엄정순(이하 엄):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자신 있게 구분 짓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굳이 저 자신의 작업을 이 두 경향에 비추어 본다면,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 경향을 다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군요. 그러나 둘 중에 한 편에 서야 한다면 의식적 예술이라고 분류되는 쪽에 관심이 더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지만 의식적인 예술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이제 초점을 엄정순씨의 작업 자체로 돌려 드로잉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드로잉과 페인팅은 각각 다른 장르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작가들은 드로잉을 하나의 에스키스로, 작업의 준비과정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엄정순씨의 경우는 드로잉 자체가 하나의 양식이 되어서 페인팅이 곧 드로잉이고 드로잉이 페인팅처럼 보이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가가 스스로는 드로잉과 페인팅의 관계에 대해, 또 그 차이점에 대해 어떠한 개념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엄: 20대 초반 그림을 시작하던 때, 저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 하던 시기에 그것을 해결하려는 처음의 방법으로 관심을 저 자신으로 돌려 보았습니다. 빈 화면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하는 막막함 속에서 유일한 구세주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것이 저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즉 저 자신의 주제파악을 하는 그 순간부터 작품이 가능해졌습니다. 저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아무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로 저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무엇이 나올 수 있는가를 끌어내보고 싶었습니다. 드로잉이 가지고 있는 신속함이나 자연스러움, 즉흥성, 솔직성 등의 특징 때문에 당시에 제가 유일하게 형식적으로 기꺼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저의 본성에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엄정순씨의 작품에서 보이는 드로잉 또는 페인팅의 선들은 식물적인 어떤 것을 연상케 합니다. 작업을 할 때 작가 스스로 식물의 형태를 염두에 두십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표출되는 것입니까?

엄: 드로잉을 저 자신이 형식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식물적인 요소가 눈이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물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식물이 가진 섬세한 선들 때문이었습니다. 식물이 가진 선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낀 수많은 선들. 그리고 미술사 내에서의 다양한 선들에 대한 체험은 저의 작품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독일에 유학 가서 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질문이 서양화란 무엇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양의 과거 고전, 중세와 르네상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빈 화면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과거 거장들이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눈여겨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의 축적을 화면에 담기 위해 처음 행하는 것이 드로잉 이었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거장들,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심취했었는데, 그의 그림을 보면서 선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이 대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다빈치의 드로잉에서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선은 단순히 그려진 상태가 아니라 인간 세계에 대한 경험의 이야기이며, 작가의 실존의 반영이자 실존의 표출입니다. 드로잉이란 장르에서 제가 배운 것은 단순히 구도나 데생력이 아니라, 드로잉이란 세계를 읽고 해석하며, 암시하고 꿈꿀 수 있는 장(場)이자 그것을 현실화하는 첫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상당히 매력과 힘을 느끼지요.

김: 엄정순씨뿐 아니라 다른 작가들에게도 드로잉을 결국 실존의 표출이 아닙니까? 특히 표현적 경향의 작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선 하나 하나가 자신의 실존의 기록이 됩니다. 엄정순씨의 경우는 그러한 표현적 선묘가 초현실주의자들의 오토마티즘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심리적 자동주의를 수용한 추상표현주의자들의 붓질처럼 엄정순씨의 선들은 행위 자체의 리듬, 즉 신체적 율동에서 나오는 것인 듯합니다. 때문에 그 선을 연필로 그렸거나 파스텔로 그렸거나 간에 자발성, 순간성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결국 엄정순씨의 선들은 초현실주의나 추상표현주의의 숙어들을 함

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 다다나 초현실주의는 인간 정신의 해방에 관계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조들에서도 인간 정신의 해방을 위해 최초로 사용했던 것이 인간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현실주의나 다다적인 사교방식 내에서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맨 먼저 자신의 신체가 도구가 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설정에 매우 동감합니다. 자연과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래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공평하게 소유하고 있는 신체 안에 문제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을 일상 생활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저의 선의 표현들이 다분히 신체 성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 즉 예술은 근본적인 출발과 그 실현이라는 것은 몸에서 시작된다는 믿음 때문에,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신체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김: 말씀하신 대로 엄정순씨의 드로잉 작품들은 신체적 행위, 신체적 운동감 같은 것들이 화면에 그대로 적히고 기록된 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결과가 바로 까실까실하고 섬유질적인 식물적인 선묘의 세계입니다. 그 선들이 표출하는 형상은 우리체적인 형상이면서도 그것이 동물적인 세계보다는 식물적인 세계를 표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작가 특유의 감수성과 바로 여성성과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요? 즉 작가 자신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표출된 것 그 자체로 어떤 성적인 감수성을 이야기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작가의 실존 인식이 성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가로서 여성에 관한 문제, 여성주의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자신의 작품과 연관시켜서 생각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엄: 아까 언급했듯이 신체에 대한 의지적인 믿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성 본연의 감수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저의 작업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기 전에 한 인간의 경험과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껏 작품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여성적인 것과 연관시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굳이 페미니즘의 문제와 제 작품을 연관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남녀의 구분 이전에 한 인간의 경험으로 제 작품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김: 유사한 경우를 예로 들자면, 조지아 오키프가 그리는 꽃은 여성의 자궁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자주 주위로부터 페미니스트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본인은 그러한 규정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주디 시카고는 자궁 이미지나 여성적 도상들을 여성주의 전략으로 사용한 페미니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성적 도상을 본연적으로 표출하느냐 의식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성적인 미술과 여성주의 미술이 차별화 될 텐데 엄정순씨의 작업은 보이는 여성적 특성이 이런 점에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컨대 같은 오토매틱한 선이라도 잭슨 폴록과 엄정순씨의 차이점에서 성적인 감수성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폴록의 화면은 단일 라인의 역음이 만들어내는 복합성을

보입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폴록의 웹(web) 드로잉의 동기가 된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바위에 소변을 누는 것을 본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폴록의 라인 드로잉이 보이는 힘이 남성들의 소변과 같은 힘차고 단일한 줄기와 관련된다면, 엄정순씨의 선들은 가닥 가닥 흩어지는 샤워라인 같이 여성적 형태를 연상시키며, 이는 여성의 소변, 또는 생리적 현상을 유추시킵니다. 엄정순씨의 여성적 선묘의 세계를 이러한 신체적 심볼리즘과 관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엄: 저의 선을 극단적으로 어떠한 신체의 제스처와 대응된다고 생각한다면 더듬는 행위와 관련시키고 싶습니다. 김선생님이 말하는 여성의 소변의 형태와도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역시 더듬는 행위가 제 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아이덴티티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제 작업의 출발점이었고, 세상을 알아나가는 방법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더듬이로 섬세하게 더듬어 나가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김: 더듬는다는 행위는 촉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비고정적이면서 비체계적인 여성적인 특성과 관계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화가 개인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엄정순씨의 경우처럼 여성적 감수성이 무의식적이고 본연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페미니즘 논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개인의 실존인식과 작품이 성실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추상화에서 여성적 영역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 제가 생각하는 더듬는 행위란 시간을 많이 들여 관찰하는 행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저는 작품을 하면서 관찰의 긴 시간을 견디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은 세잔의 방식과 만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김: 그렇죠. 세잔의 경우 대상의 리얼리티에 대한 탐색이 바로 그러한 더듬이 식으로 이루어진 셈이죠. 하나의 선으로는, 즉 고정된 시각의 원근법적 선으로는 대상의 리얼리티를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세잔의 회화적 고민이었습니다.

엄: 제가 다빈치에서부터 세잔까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예술은 시간과 함께 가는 더듬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 입니다. 하나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세잔이 견뎌야 했던 시간들에 주목합니다. 저 역시 하나의 꽃을 그리면서 수많은 선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결국 나는 꽃을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하나의 리얼리티를 만드는데 더듬는 행위가 저에게는 수단이 됩니다.

김: 미술작품이 개인적 표출을 넘어서서, 관찰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행위로서 의미를 가질 때,

작품의 창조행위가 인식행위라는 명제가 가능해집니다. 현대미술이 장식, 개인 감정의 표출의 차원을 넘어서 소통과 정보적인 것과 관련을 지을 때면 예술은 인식론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엄정순씨의 작업은 처음에 언급했던 의식적 미술의 계열에 속한다는 결론을 귀납적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엄정순씨의 작업이 자기 정체성과 연관되어 매우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작가들은 대부분 수직적인 깊이로 승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매체 실험 등으로 자신의 세계를 수평적으로 확장시키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엄정순씨는 수직 형의 작가 같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는 작업에 대한 관념들을 수평적으로 확장시킬 의지가 있는지, 즉 매체실험 등으로 작품 세계의 변화를 도모할 것인지 궁금하군요.

엄: 몇 년 전부터 그러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더듬는 행위를 통해 보는 세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평면작업만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때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과, 아직은 평면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신념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관념들이 보다 다양한 매체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새로운 매체가 무엇일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 그러나 회화적인 것보다는 선적인 것이 엄정순씨의 가장 큰 특징인데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그러한 선적인 것이 표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자체는 선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형태로 표출될 수 있고 마띠에르로 변화될 수 있고 오브제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자신의 섬유질적인 선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 생겼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고 기대가 큼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군요.

엄: 앞으로는 대상에의 관찰과 저 자신의 신체의 움직임에 만나서 전혀 새로운 형식을 도출하는 맥락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즉 저의 더듬이 제스처를 통해 만나는 상상력을 현실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